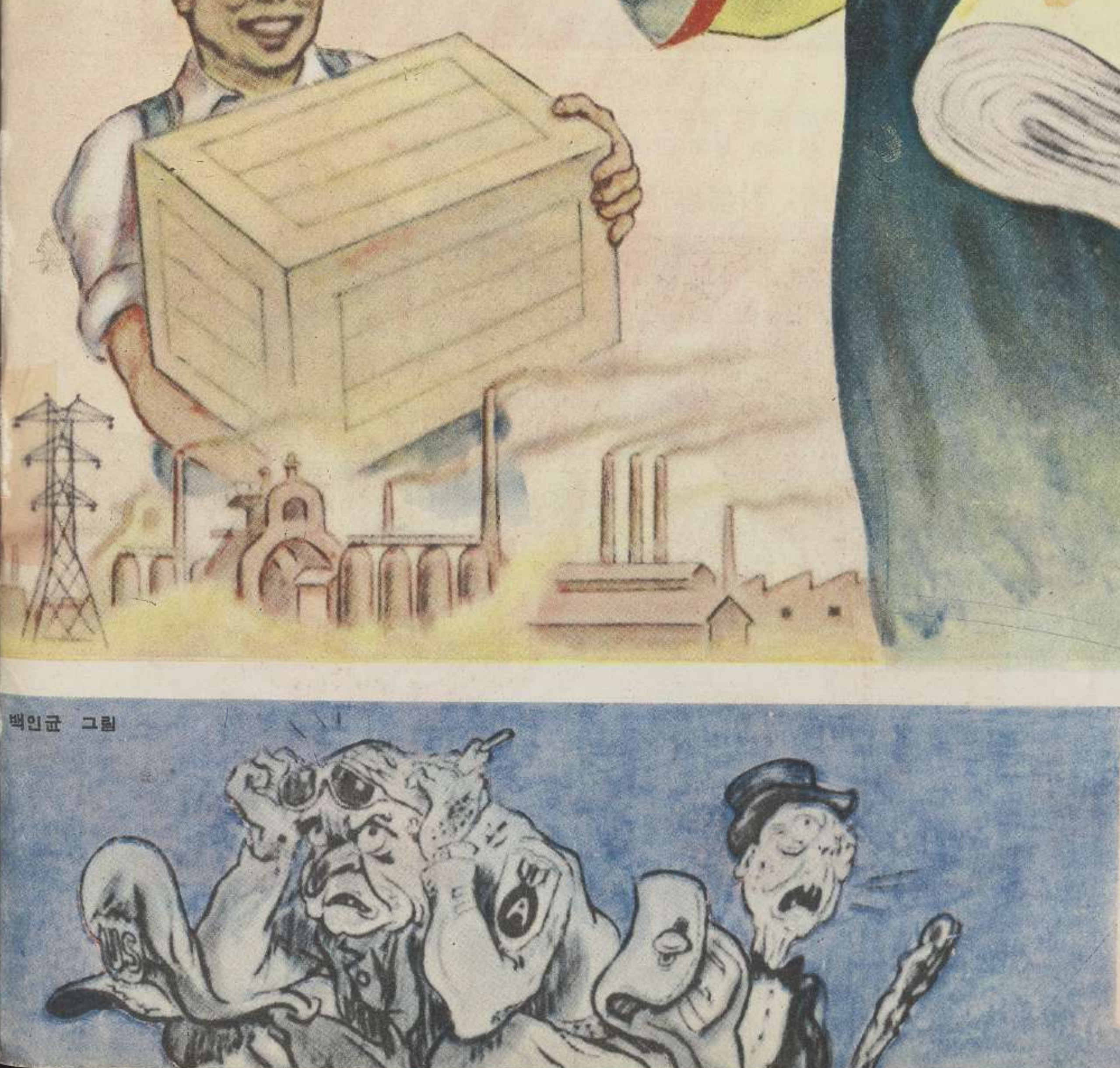
우리는 북조선 인민들이 달성
한 찬란한 로력적 성과들이 남
조선 동포들에게까지도 나누어
지게 될 것을 열렬히 희망한다

3 - AUG - 9
Copy ____ 1960

백인균 그림



활살

1956년(66)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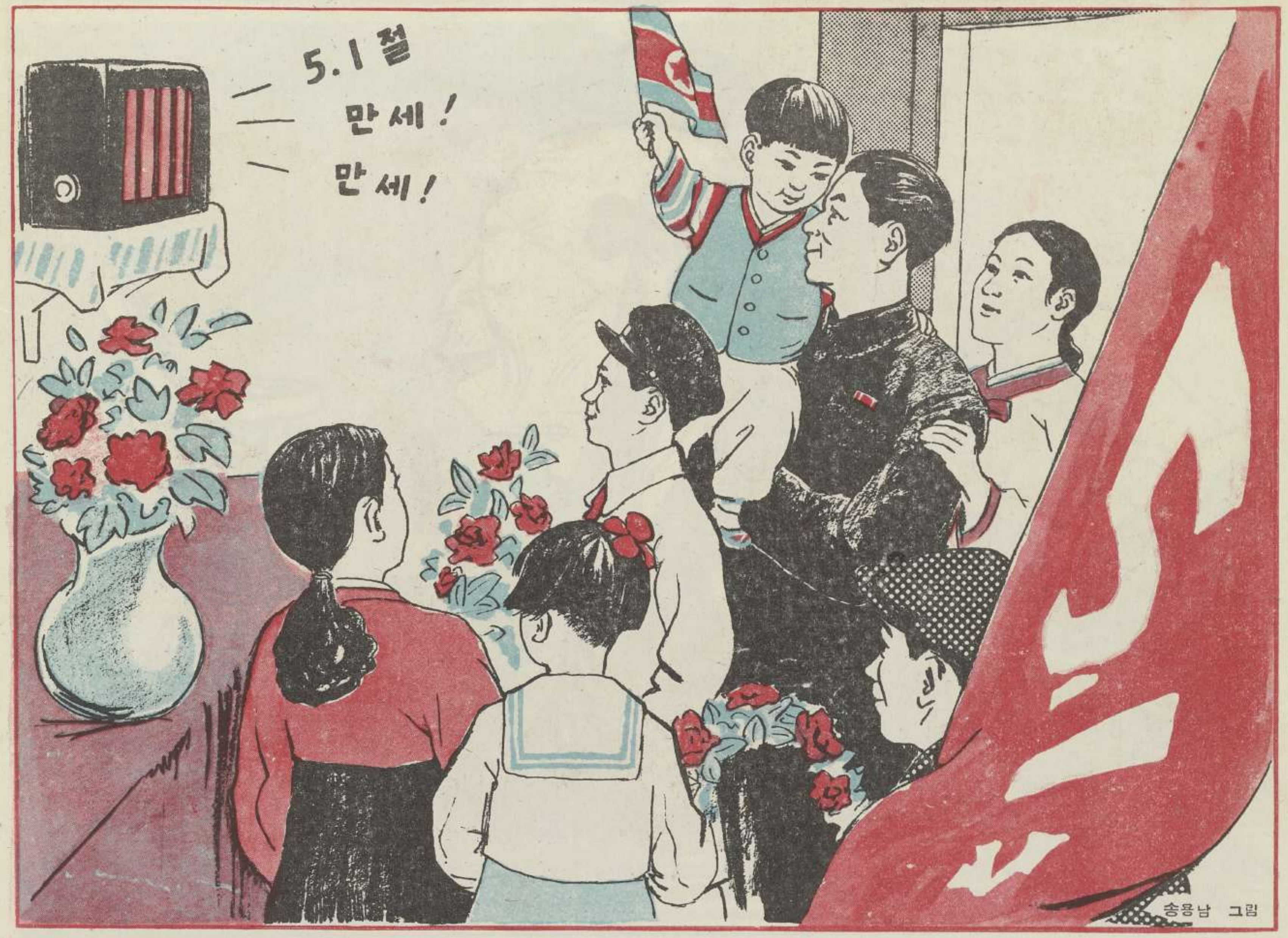
노래하자 5.1절 우리들의 날

안창수 그림

북반부 전체 로동자들은 3개년 계획의 4개월 단축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5.1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깊게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와 실업에 허덕이는 남반부 로동자들은 경찰의 탄압 속에서 5.1절을 맞이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폭압만이 가심해 지는 남조선 땅

조국의 방방 곡곡에 5.1절의 감격은 들끓는다



송용남 그림

—아버지 평양에서도 만세 부르지…
—그래 저건 평양서 하는 시위다 지금 로력 혁신자 아저씨들이 주석단 앞을 지나간다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을 맞이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각지에서는 근로자들의 군중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누가 빼앗아 갔는가

유 항 림

창호가 한 다리를 절름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위에서는 모두 천만 다행이라고 했다. 심지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로무 사단»에 끌려 나왔다가 목숨만이라도 보존해 가지고 나가니 다행이라는 말이고 그것이 부럽다는 심정들이다.

그러나 정거장까지 걸어가는 도중 창호는 몇번이고 걸음을 멈추고는 불구자가 된 자기 왼발을 들여다 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전장하면 내 발을 빼앗아 갔는가!

× × ×

서울까지 온 창호는 가족을 찾는 데 사흘이 걸렸다. 열달 전에 받았던 편지의 주소로 찾아 갔으나 거기에는 터만 남아 있었다. 판자집이라고 철거시켰다는 것이였다.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갔는가? 누가 우리 가족에게서 집을 빼앗아 갔는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친척집들과 친지들을 찾아 헤매던 창호는 친척집 웃칸 한 구석을 얻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가족을 사흘만에야 만날 수 있었다.

안해는 창호를 보자 울음부터 터쳤고 창호—자신도 말보다 눈물이 앞섰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는 바람에 애들도 오랫만에 돌아 온 아버지께 인사할 생각도 미처 못하고 모두 울기만 한다.

생지옥과 같은 «로무 사단» 에서 뇌여나 돌아왔으니 우선 반갑기는 하지만 그가 병신된 것을 보고 원한에 사무쳐 우는게고, 피차에 헤여진 뒤에 겪어 온 저각기의 서러움들 때문에 울음 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리고 암담한 앞날을 생각할 수록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먼저 눈물을 거둔 창호는 물었다.

«세째는 어디 갔소. 윤식이 말이요»

그러자 그쳐가던 안해의 울음은 갑자기 커졌고 옆에서 애들이 윤식의 최후를 알려 주었다.

인구 백 여 만이 넘는 대도시이면서도 양초나 석유 아니면 등을 켤 수 없는 서울, 그나마도 입에 풀칠하기만도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양초나 석유조차 그림의 떡인 서울—하루는 길가에 미군 화물 자동차가 서 있었는데 휘발유가 새서 땅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아까운 생각에 윤식이는 깡통 하나를 들고 나가 흘러내리는 휘발유를 깡통에 받고 있었다. 그걸 본 미군놈은 아무 말도 없이 총을 발사했다. 이리하여 여덟살 나는 윤식은 죽었다. 창호는 이만 갈렸을 뿐 다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놈들은 우리 윤식이의 목숨조차 빼앗아갔단 말인가!

× × ×

창호는 일자리를 구하려 룡산에 있는 기계공장을 찾아갔다. 일찌기 어렸을 때 그가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선반 기능공이 된 공장인만큼 아직도 낯익은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했다. 왼 다리를 절름거리기는 하지만 선반을 말기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텅 빈 집은 보았으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일자리도 구할 길 없었다.

«귀속 재산» 불하 때 이 공장을 산 뿌로카들은 이 공장에서 제품을 내려고는 하지 않고 기계를 뜯어 내다 팔아 먹는 데만 몰두했던 것이다. 미국 잉여 상품의 시장으로 되여 버린 남조선에서 전체 산업이 질식 상태에 빠져 있는만큼 이 공장의 일거리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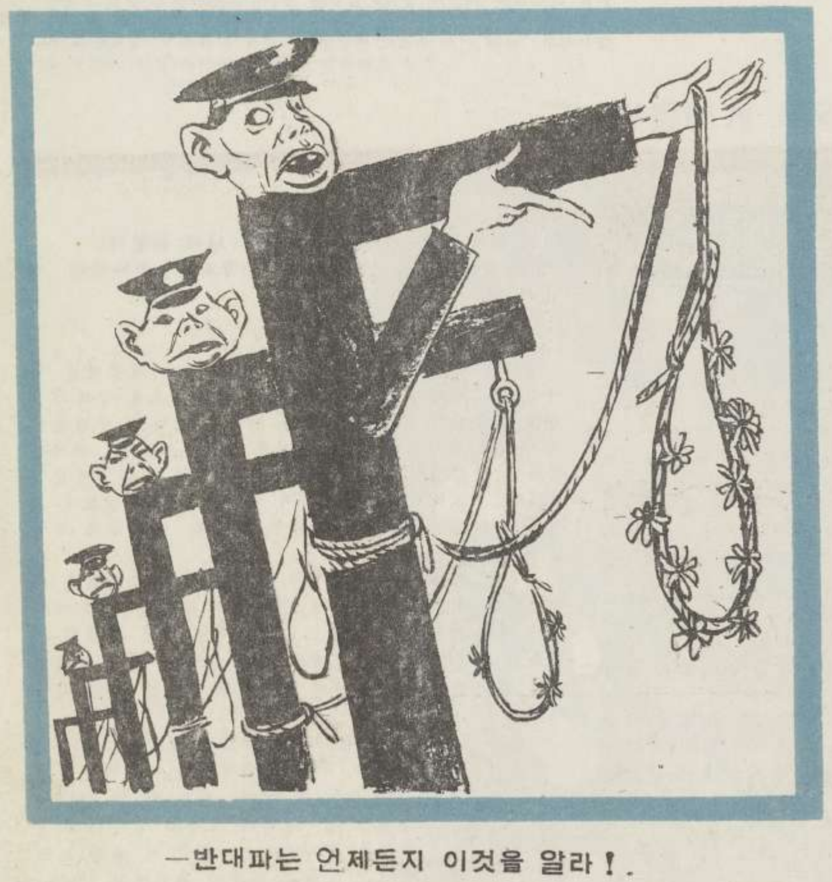
—누가 우리에게서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창호는 이가 갈리고 주먹이 쥐여졌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 이대로는 더 살려 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로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에야, 미제를 몰아내고 그 주구 리 승만 도당을 타도하는 날에야, 그리고 조국이 통일되는 날에야 떳떳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리 승만의 출마 단장

—어떻게 하면 더 매력이 있어 보일가?

박승히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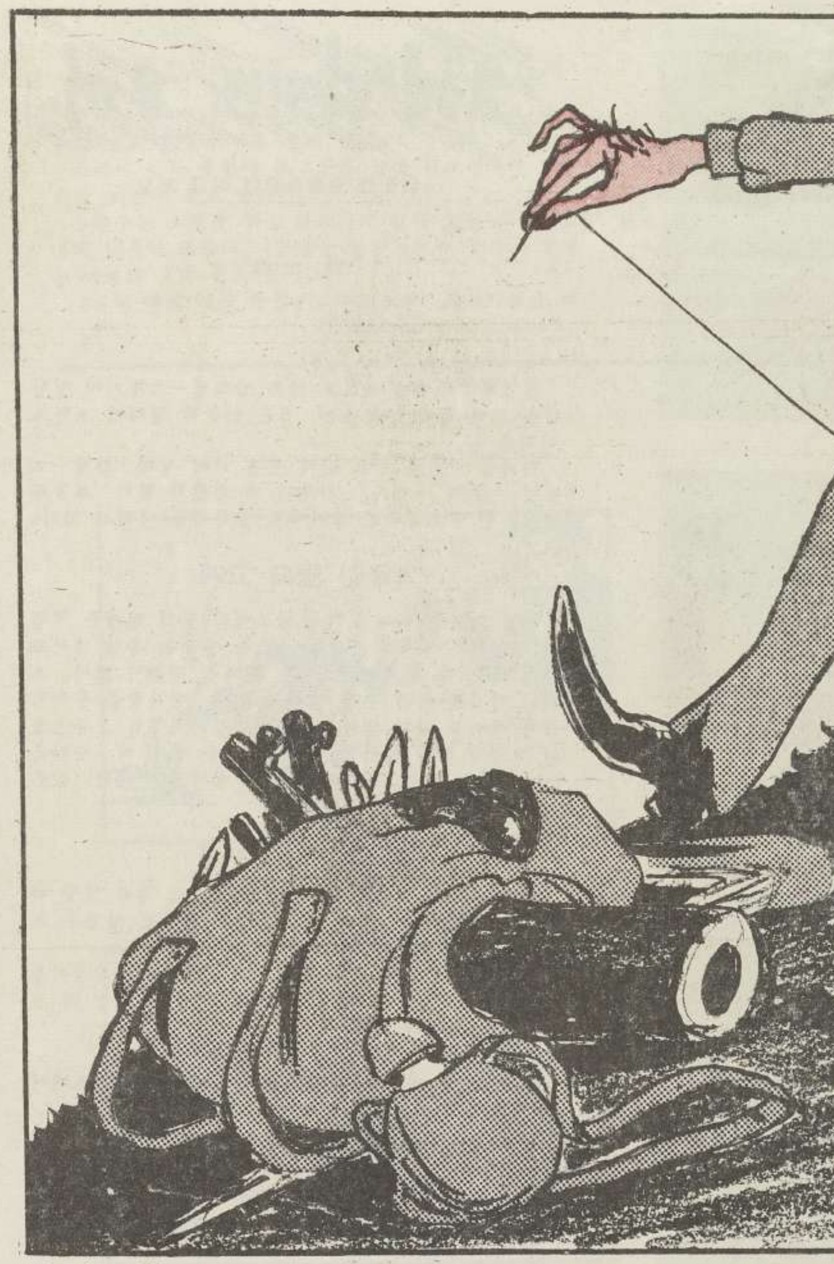


—반대파는 언제든지 이것을 알라!.

—반대자는 반드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라!

리 승만은 미제의 비호 하에 졸개들을 발동시켜 갖은 강압책을 쓰면서 『대통령』3선을 위하여 더욱 파렴치하게 날뛰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의 혈연적 관계



송용남 그림

미제는 남반부에 대한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리 승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도 또흠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3선시키기에 갖은 책동을 다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오 룡택

5월 14일 밤!

경상남도 어는 면 경찰 지서에서 가설 류치장으로 쓰고 있는 『국민 학교』 교실에는 사람들이 빼꼭히 감금 당하고 있다。그들은 무엇 때문에 잡혀 왔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다。

초생달도 넘어간지 오래다。 등잔불 하나 없는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싸늘한 공기가 떠 돌고 있다。

자정도 넘었으리라고 생각될 때 석유 등잔불이 다섯 여섯개 앞서고 경찰 지서장과 자유당 면당 위원장이 막대기 먹은 놈처럼 뻣뻣해 들어왔다。

경찰 지서장이 빨진 얼굴을 씨무럭거리며 헛기침을 몇번하더니 뇌까리기 시작하였다。

『에—또 너희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못살겠다는 랑설을 퍼뜨렸으니 국가 보안법에 비추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당 면당 위원장께서 너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간청을 하시기에 경찰 당국으로서도 생각한 바 있어 오늘밤 자유당 면당 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다』

자유당 면당 위원장이 배통을 내밀고 개기름이 번지르한 상통을 손수건으로 씻으며 연설조로 지꺼리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제 날이 밝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때에 여러분이 이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경찰에 간청하여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비록 크지만 용서 받고저 하니 우리 자유당의 심중을 알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로서는 우리 자유당의 립후보인 리 승만 박사에게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석방하도록 진력할 작정이외다。 여러분 ! 나는 여러분들이 장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모아놓고 리 승만 박사를 찬성 투표하면 전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애국자로 인정하고 여러분을 석방시키도록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말이 없다。

『여러분! 자기 신세를 망치지 않기를 우리 자유당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뇌까리고 나서 경찰 지서장과 자유당 면당 위원장이 나간 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무엇인가 약속하였다。

× × ×

5월 15일

동녘이 푸름푸름해 지자 경찰 지서장이 나타나더니 한바탕 호통을 부렸다。

『에—또 너희들을 특별히 고려해서 대통령 선거에 참가시킬 터이니 투표 결과를 봐서 애국자로 인정되는 자만을 관대히 용서할테다』

사복 차림을 한 경관들은 다짜고짜로 리 승만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 후 전체 『감금자』들을 화물 자동차로 『선거장』까지 실어갔다。

『선거장』—테로단원들이 어깨를 돕구고 제 세상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벌써 테로단원들의 몽둥이 바람에 인민들이 끌려 나와 있었다。

『석 줄을 그은 아래에다 동그람을 이렇게 치는거야!』하고 테로단원들이 인민들에게서 다짐을 받으며 한쪽에서는 위협을 하고 있다。

(※ 리 승만에 대한 『선거 기호』는 석줄(三)로 되여 있으며 그 밑에 동그람을 치면 찬성하는 것으로 되여 있다)

그러나 인민들은 개자식들 마음대로 떠들어 보라는 식으로 도무지 말이 없다。 분위기는 험악하고 삼엄하다。

소위 『사상 불온자』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화물 자동차로 실려 온 선량한 이 『죄인』들은 『선거』를 한 후에도 다시 경찰 지서로 끌리워 갔다。

× × ×

그러나 놈들의 추잡한 기만극은 원숭이 불기작 트러나뭇이 되고 말았다。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리 승만에 대하여 찬성 투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놈들은 언제나 그식으로 『찬성표』로서 허위 계산을 한 것이였다。

하기야 『유권자 명부』대로 인민들을 끌어다 대기만 하면 뒷처리는 『간단』한 것이다。 놈들로선 인민들의 투표가 반대가 됐던 무효가 됐던 막걸리 사발이나 먹여서 매수한 테로들에 의하여 준비한 『찬성표』로써 바꿔치는 것쯤은 극히 용이한 일로 되여 있는 것이다。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 리 승만은 테로들을 동원시켜 『선거장』을 감시케 하며 반대파들의 활동에 대해선 비렬한 탄압을 가하면서도 소위 『자유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였다고 떠벌이고 있다

이것이 미국식 『자유 선거』다

『합법적인 활동』도 보장됐고…

『자유스런 분위기』도 보장되였으니

박승히 그림 —너희들의 공로를 높이 찬양하노라!

고개 넘어 또 고개

—남조선 로동자들의 이모 저모—

박 노 을

첫 고개

실업자 2백 만을 세고도 남는 남조선—그렇기에 일자리를 하나 얻어 붙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일。

다리에 다리를 놓고 끈에 끈을 이어 청탁 간청—그러면 손부터 내민다。 하루에 쌀 한됫박 벌이 로동판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교제비며 운동비를 내라고 한다。

억울한 둘째 고개

친정 모르고 올라만 가는 남조선의 물가 형편은 일일이 말하여 무엇하리, 한오큼 받는 임금은 몽땅 먹어도 배가 곯는 데 등치는 자, 손 벌리는 자들이 많다。그러나 이자들 역시 우에 우가 있으니 이자들을 통하여 긁어 들이고 빨아 들이는건 리 승만, 피땔린 로동자들의 고귀한 값을 빨아 들이면서 늙은 주구 리 승만은 『오래 사는 데는 거북의 기름이 좋다지… 에헴 값은 고사하고 어서 사드리렸다』

처참한 고개 고개

작업 조건이야 어쨌던 사람이야 죽건 말건 탓할 바 없다고 내몰아치는 남조선 고위 층의 행실은 남반부 로동자들을 죽음의 구뎅이로 내몰고 있다。

형월 탄광만 하드래도 최근에 또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였으니 침수된 갱 속에서 칸데라 불도 꺼졌는 데 로동자들은 이렇게 웨친다。

—이놈들아 동발목은 누가 먹었느냐?

로동자들을 인간 이하로 처우하는 것은 로동 조건에서 뿐만이 아니다。

미군 제8군 산하에 있는 부산, 군산, 인천의 부두 로동자들은 철조망 속에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닌 세 겹의 철조망—그래도 미군놈들은 안심이 안되는가? 권총까지 빼여들고 웨친다。

—왜 비틀거리는 거야?

굶주린 로동자 힘에 겨워 상자를 메쳐었것만 『갓뎀!』 구둣발이 가슴을 찬다。

로동자는 채운 가슴이 아프기보다도 뻬죽히 내민 상자 속의 포신을 보고 더욱 격분한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더욱 가심해 지고 있는 무권리와 실업과 빈궁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보다 첨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는 참을 수 없다

리영춘 그림

—각하… 패를 들 놈들이 없습니다
—뭐리고? 저 실업자들을 동원시켜라!

—각하… 패를 든 놈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런 어쩔 것이냐…

해고의 선풍, 돌개바람 부는 고개

미국이 추구하는 민족 자본의 예속화 정책으로 공장주도 날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방직 공업이 조그만치 있던 남조선에서 그것마저 쪼들어 들고 말았다。

공장주는 로동자 수를 감소하고 남아 있는 로동자들에게 12시간 로동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곤경의 궁책을 타개해 보려 들고 있다。

『대한 방직 대구 공장』은 60프로의 로동자들을 해고했으니 로동자들은 해고의 선풍 돌개바람 휘몰아치는 고개 고개에서 분개하고들 있다。

× × ×

그러나 로동자들은 씩씩하게 싸우고 있다。 미군 8군 산하 인천과 부평의 5천명 로동자들은 임금의 백프로 인상을 요구하여 나섰다。

부산 부두 로동자들도 억울한 처지를 가만히 참고 있지는 않는다。

그들은 부르짖는다。

—우리에게 살길을 달라!

—미군은 물러가라!

—리 승만 역도를 타도하라!

『대한 방직 대구 공장』의 한 로동자는 서울 어느 신문사에 보낸 자기의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종업원들이 사소한 불평이라도 하면 「붉은 분자」니 무어니 하는 일방적인 혯텔을 붙여가지고 당장 해고하는 것이다… 우리들 종업원은 어디까지나 「힘없고 돈 없는 비애」만 맛보아야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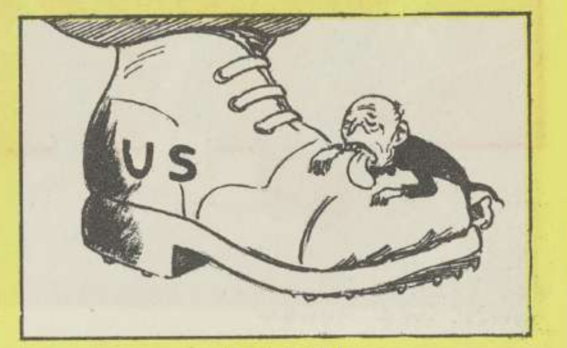
리승만의 먹자질

손 동 진 원작
원 광 수 개작

쏘아 먹기

훔쳐 먹기

빨아 먹기



핥아 먹기

숨어 먹기

찍어 먹기

속여 먹기

잘라 먹기

팔아 먹기

망해 먹기

승리자의 대렬은 나아간다

—동무가 저 대렬에 들어 서려면 그 틀차림의 장비를 버리시오

리영춘 그림

공화국 북반부 근로자들은 빛나는 로력 성과를 자랑하면서 5·1절을 기념하였다

물결치는 금싸락

안창수 그림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1954년 이후 현재까지 9만 정보의 관개 몽리 면적이 증가되였으며 10만 정보 이상의 농토를 수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천 제방 공사들이 실시되였다 그리고 43개 소의 저수지와 568개 소의 양수장이 복구 신설되였다

복남 할머니의 평양 구경

—전쟁 때 빈터만 남았었는 데 어느새 저런 큰 집들이 들어 섰담…

—애기 어머니 이 집이 상점인가요?
—네 국영 백화점인 데 전람회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좋은 천도 짜 내는가요
—그럼요 얼마든지 나오고 있는걸요

—녀자 손으로 그 큰 외국 기계를 다루다니 참…
—할머니 이 기계도 저희들 손으로 만들었는걸요

—음식이 값은 내리고도 훨씬 좋아졌구려…
—앞으로도 해마다 늑어지고 좋아질거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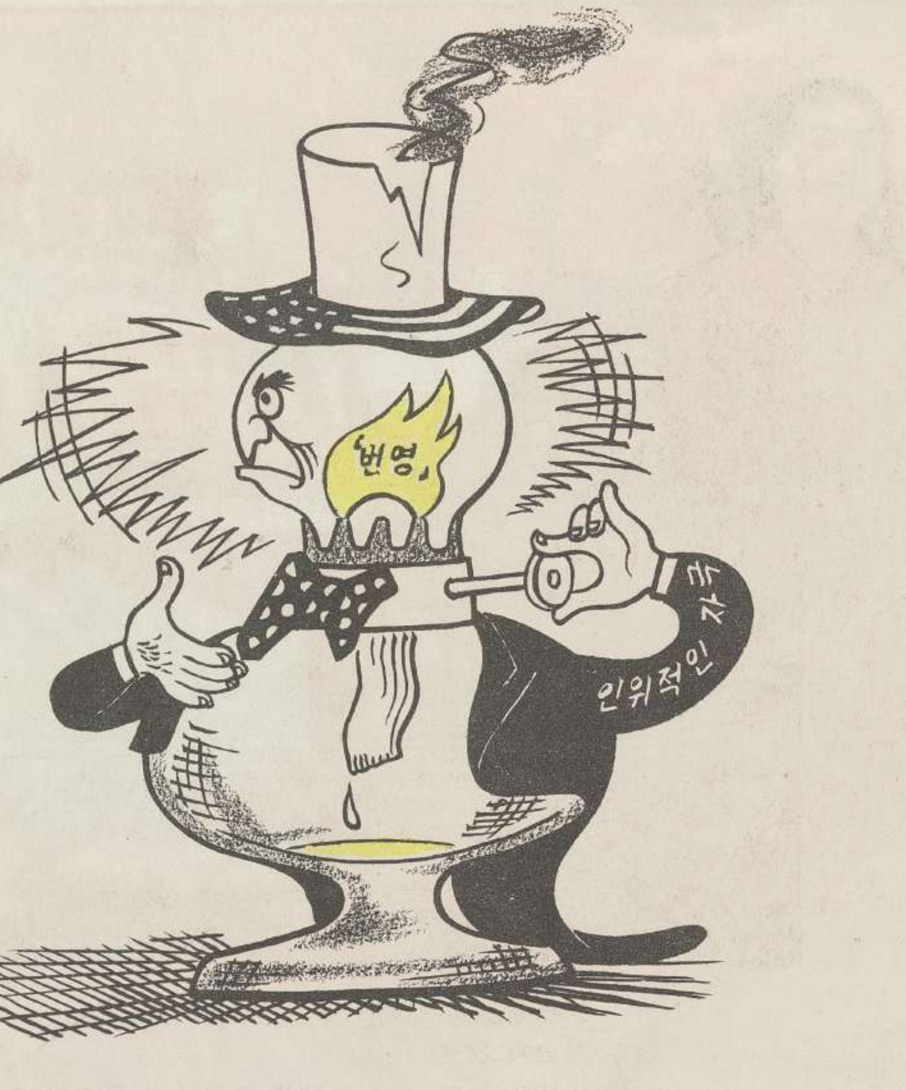
—할머니께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신다
—내게는 더 좋은 선물인 평양 구경한 이야기가 많다

리영춘 그림

漫畫 - 만화

중국 풍자 만화 잡지 "漫畫" 1956·65호에서 전재
로 병 현 그림

마지막 숨을 돌리는 순간



서방의 일부 인사들은 요즘에 소위 "번영"에 대해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위기에 관한 맑쓰주의 학설이 마치도 "이미 낡았다"는 듯이 증명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의 자본주의가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점점 더 인위적인 자극이 필요해 졌다

아동들의 비밀 매매를 반대하고 법적 매매를 위하여!

미국 통신 뉴—쓰떼 떼루 엔떼루프라이쓰 아산쉬에이슌은 최근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10년 동안에 현저하게 증가된 비렬하고 비법적인 아동 매매의 결과로 "파괴된 가정, 아주 저비런 신세, 아동 범죄 등의 형태로써 미국은 무서운 결과들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 계산하건대 최근에 15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비밀 시장에서 팔리웠다. 각 주들에서는 수천 명의 아동들이 양자란 명목으로 500내지 3,500딸라의 가격으로 마치 밀가루 마대들처럼 매매되였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들이다. 실로 미국에는 홍치운 아동들이나 기타의 매매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홀어머니와의 소위 협의에 의하여 아동 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산과 병원들과, 개인 개업 의사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통신사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총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약간의 결론만을 내렸다.

"아동들은 각 주들 간에 있어서 상업의 법적 대상으로 공포되야 한다—통신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각 주들 간의 자동차들과 기타 물품들을 사고 파는 데는 제도화된 련방 법규가 있지만 각 주들 간의 아동을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련방 법규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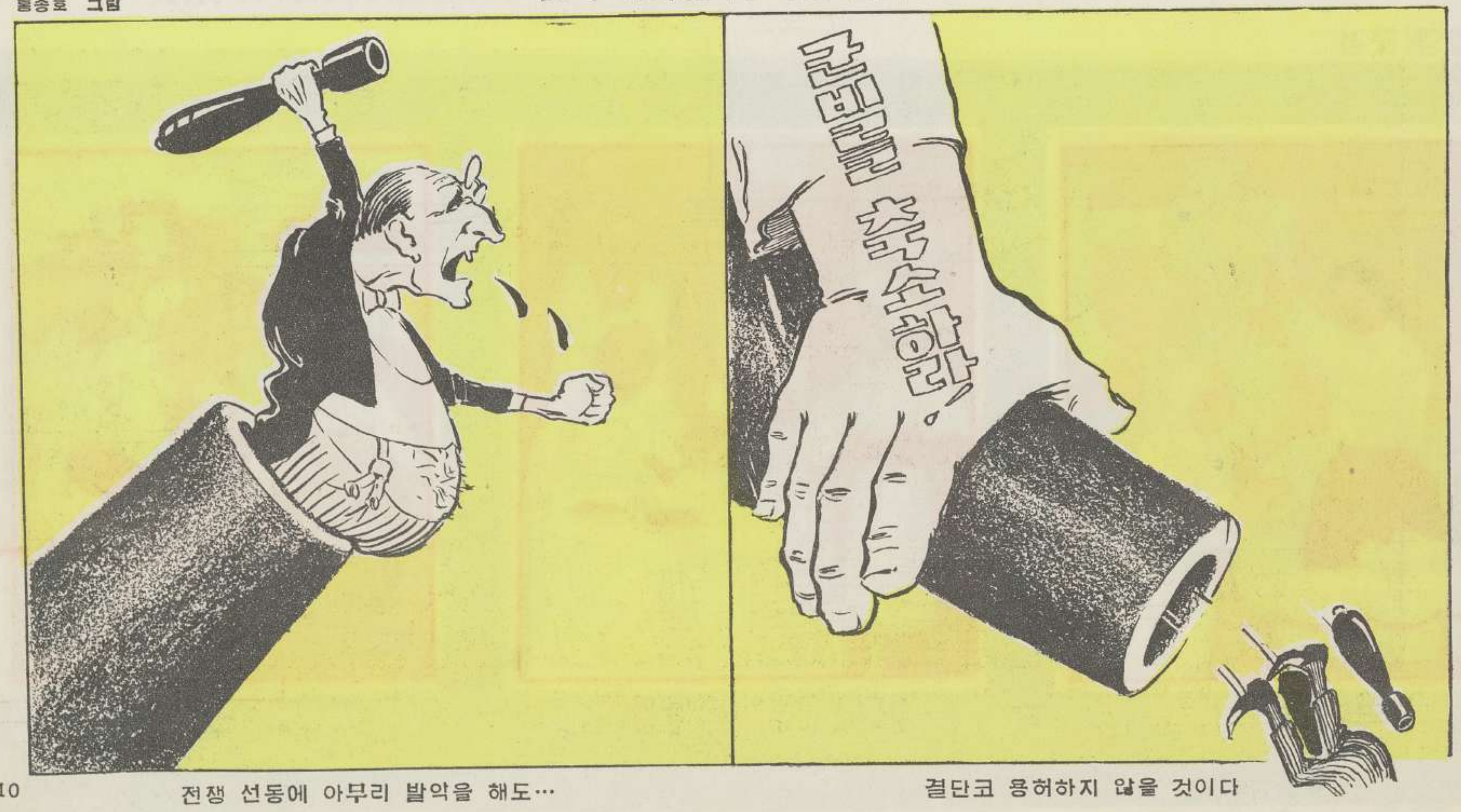
우의 경우에서 미국 통신사의 법에 대한 존중은 우리에게는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

—끄로꼬질 9호에서—

보다 위력해 진 력량 앞에

홍종호 그림

금년도 5·1절에도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하여 단결된 전세계 근로자들의 강대한 력량을 시위함으로써 전쟁 선동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전쟁 선동에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단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상원 의원-농장주

최근 미국 정계에서는 상원 의원 제임쓰 이스트랜드라는 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상원 의원의 이름은 큰 활자로써 보도되고 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그를 상원에서의 자기들의 대표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스트랜드 자신도 상원 의원 일 뿐만이 아니라 농장주이다. 그의 소유인 미시시삐주와 다른 곳들에는 흑인들이 일하고 있는 5,000에—카 이상의 땅이 있다.

상원 의원 농장주는 자기의 흑인들을 증오하고 있다. 그는 모든 흑인들과 유색 인종들을 증오한다.

여기에 상원에서 한 이스트랜드의 연설의 한 구절이 있다.

"흑인종은 가장 렬등한 인종이다. 나는 내가 백인종임을 자랑한다는 것을 로골적으로 말한다. 나는 나의 혈관에 백인종의 깨끗한 피가 흐르고 있음을 자랑한다. 나는 백인종을 최상의 인종이라고 생각한다. 백인종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이스트랜드는 흑인들을 압박할 데 대하여서와 국립 학교들에서의 인종 차별들에 대하여 (유색 인종들과 백인종들의 구별) 로골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인종론적 연설은 상원 의원의 출세를 공고하게 하였다. 그는 공민권 문제를 취급하는 상원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 그는 또 하나의 임명을 받았다. 그는 상원 법률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였다.

실로 이상 더 적당한 후보자를 찾아 내기가 어려웠었을 것이다!

—끄로꼬질 10호에서—

(한 동 신 번역)

헝그리아 풍자 만화 잡지 "루다슈마지" 1955·31호에서 전재
카스바 그림

Ludas Matyi — 루다슈마지

날 저물고 길이 궁한 식민주의자

—보시오 아세아의 기후는 우리 아버지의 년세에는 아주 적당치 않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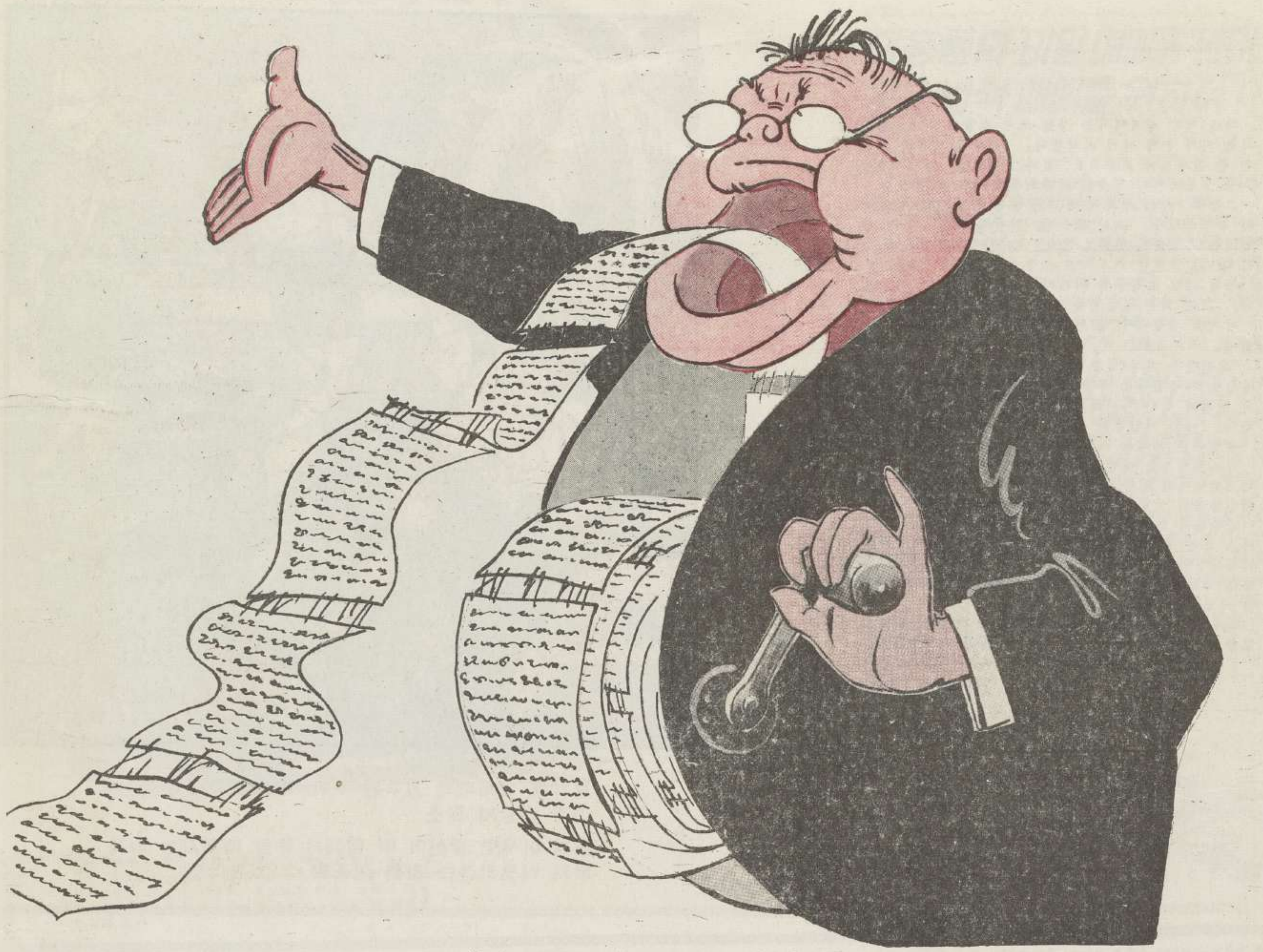
—념려 마시오 당신이 이 땅에서 늙을 때까지는 있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5·1절 풍경

장진광 그림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허위 중상하지만… 실은 자국의 로동 계급을 기만하려는 술책이였다

교조주의 기계



통채로 말아 먹었다가
통채로 내놓는 자를 두고 말한다

장진광 그림

두 장의 공문

김 문 규

소비 조합 구장군 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여 한시간 이상이나 되였는 데도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다.

말석에서 아무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던 상업부장이 조심성 있게 입을 열었다.

『저도 간부들의 의견을 두 세번 되풀이해서 반대하는게 퍽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제 립장도 있고 하니 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하도록 호르마링을 무상으로 제때에 보장해 주었지요. 또 듣자니 전에는 잘 몰랐던 농민들까지도 금년에는 꼭 호르마링으로 볍종자를 소독한 다음 모를 붓겠다고들 각지 상점을 자주 찾아 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뿐인가요 군 인민 위원회 농산부에서는 매일 같이 농약 공급 정형을 보고하라고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공급 책임을 진 우리 소비 조합으로서는 각 농촌 상점에로 어서 호르마링을 실어 보내여 농민들의 손에로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상업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 큰 소리를 쳤다.

『걷어치우시오 상업부장만이 국가 일군이 아니요. 내가 여기서는 최고 책임자요. 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비 조합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소비 조합이 얼마나 바쁜 때요. 1·4분기 류통 계획도 초과 완수해야 하는 데 도대체 호르마링쯤이 무슨 큰 문제가 된단 말이요. 필요하면 농민들이 제발로 와서 가져갈 것이지 무슨 걱정이요』

위원장의 호령에 뒤이여서 부위원장도 한마디 끼였다.

『참 당신도 딱하오. 호르마링은 어엿한 약품이요 그러니 우선 용기도 문제려니와 어떻게 군 내 26개 리에 모두 보낸단 말이요. 군 인민 위원회에다는 용기가 없어서 각 상점에 보낼 수 없다고 구실을 부치고 호르마링은 모두 군 소재지 상점에서 공급하기로 합시다』

이리하여 결국 구장군 소비 조합에서는 호르마링이 도착된지 일주일만에야 비로소 그 『공급방법』이 결정되였고 다음날 군 내 각 리들에는 한장의 공문이 나갔다.

"륙모판 탁종을 앞두고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 소독용 호르마링을 소비 조합 구장읍 상점에서 모두 일괄하여 공급하는 바 각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농민들은 용기를 마련해 가지고 와서 타가도록" 해달라는…

읍으로부터 백리길이나 되는 개화리의 농업 협동 조합에서와 개별적인 농민들이 호르마링을 타기 위하여 군 소재지로 찾아왔다. 하창리에서도 령을 넘고 청천강을 건너서 몇 병의 호르마링을 타려고 구장읍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춘경 파종은 최성기에 들어섰다. 어떤 농민들은 바쁘다나니 하는 수 없이 호르마링 소독을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상점을 찾아오는 농민들의 수효는 점점 줄어들었다. 상점 일군들은 귀찮아졌다. 아무렇게나 구실을 부쳐서 그만두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한 상점 책임자는 군 소비 조합에로 위원장을 찾아갔다.

『위원장님 우리는 밤낮 그놈의 냄새 고약한 호르마링만을 다루고 있어야 합니까 어서 어떻게 좀 방책을 세워 주시오』

위원장 생각에도 상점 책임자의 의견이 그럴듯하였다. 또다시 농촌에는 두번째 공문을 띄웠다.

"호르마링을 사러 올 때에는 온 부락에서 모두 한꺼번에 올 것,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소비 조합 구장군 위원회에서는 공문으로만 사업하기를 좋아하는 데서 이른 봄에 필요한 종자 소독용 호르마링이 4월 중순까지 소비 조합 구장읍 상점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하는 무책임한 공급 사업을 하였다.

곰과 리력서

아. 말린

사무실 안에 틀 차리고 앉은 곰 한마리
안경을 걸친 다음 리력서를 읽었다。
리력을 신중히 검토해 보며고…
『다리는 네 개…』
『귀는 둘…』
『털빛은 윤택이 있고
목덜미털이 그중 길다…』
『꼬리는 비쭉무만 하고…』
『소리를 지르면 산악도 울릴듯…』
—이것이야말로 사자가 아닌가!
거 대단한 걸!—
곰은 기뻐서 입을 벌렸다。
—녀구려!
간부부에 리력서를 갖다 주오!
오늘 내로 오소리를 철직시키고
당장에 사자를 임명케 하오!—
자, 이제는 모두들 나를 보고 말할테지
—곰 나으리의 머리는 총명한 걸!
사자를 조수로 두게 됐으니!—
곰은 안면 있는 코끼리에게 자랑하였다。
(«간부 선발은 능숙해야 된다고»)
그는 장모와 마누라도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람에게도 이야기 하였으며
지어는 꿈까지 꾸게 되였다。
매우 기꺼운 기분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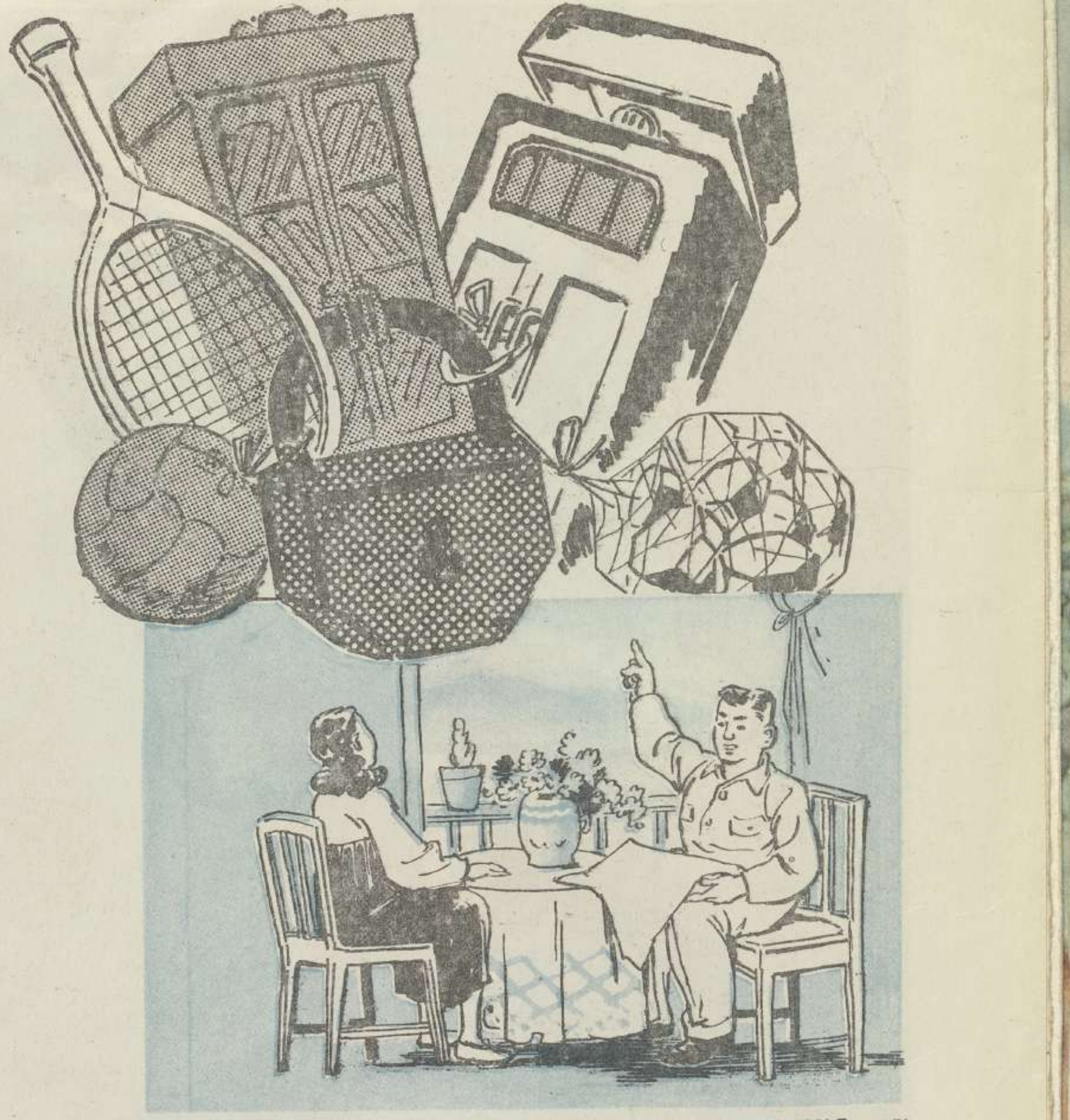
…아침에 우리 곰은 사업에 착수했다。
이윽고 그의 앞에 당나귀가 나타났다。
—난 그런 허튼 수작을 싫어하오!—
곰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대관절 자넨 어떻게 이리로 찾아 왔소?!—
—어떻게 찾아 왔느냐구요?
그야 아주 간단합니다
리력서 덕분에 불려 왔습죠—

× × ×

덮어 놓고 리력서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기막힌 노릇 세상에 더 있으랴!

(리 세규 번역)

『휴양』중의 문화 기자재



…문화 설비는 잘 됐건만?

리영춘 그림

일부 휴양소 문화 지도원들 중에는 휴양생들의 요구와 취미에 알맞는 창발적인 문화 사업을 조직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비된 문화 기자재까지도 적절이 활용 못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도 있다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기계를 효과적으로 리용 못하는 경향들이 있다

최영근 그림

부장 동무 현장에로 나가신다

박승희 그림

좀 더 생각을

『엄마… 만세!』

다섯살난 창식이가 명순이와 함께 놀러 나갔다가 휀싱싱한 잎이 달린 나무가지를 물고 물어 오면서 신나게 흔들어 보이였다。

『오—창식이 만세!』

어머니는 반겨 아들을 안아 올리면서

『아이구 요런… 어데서 이렇게 좋은 것이 생겼나 응?』하고 자애심에 겨워서 입까지 맞추었다。

『어머니 창식이가 "아름다운 내 조국…„ 하고 5·1절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시늉을 하길래 내가「꽃다발」이라고 꺾어 주었더니 좋아하겠지…』

명순이가 얼른 제가 인민군거리에서 가로수 잎가지를 꺾어 준 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랬나… 창식이가 참 장하구만 어디 "아름다운 내 조국…„노래를 또 불러보아…』

어머니는 더욱 귀여움을 못이겨 아들이 들고 있는 나무가지를 같이 흔들면서 말했다。사실 내 아들 귀여운 생각에 사로잡힌 어머니로서는 그 나무가지에 대해선 전혀 무심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정 내 아들 딸들이 귀엽고 또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나무가지가 전쟁 후 얼마나 정성껏 심어진 것이며…

또 어떻게 애호하며 가꾸야만 "아름다운 내 조국„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맹 서방과 공 부인

원광수 그림

분개하기 전에-념려를

『여보! 오늘 광렬이 담임 선생이 찾아 왔습디다』

저녁상을 치우면서 안해는 걱정스레이 말했다。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글세 광렬이 녀석이 영 못되게만 논다느문요。 처녀들 보고는 막우 욕찌거리를 하며 빼스탈 때도 빼젓히 새치기만 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선생님도 걱정이 되여 상의하려 왔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도 너무 방임하지 말고 잘 단속해 달라고 부탁합디다』

『뭐라고? 그렇니까 애들을 선생한테 맡기는게 아닌가 말야… 그래 선생이란 도대체 무얼하는 것인 데 국가 사업에 바쁜 간부더러 애새끼 단속이나 하란 말야…』

남편이 너무도 역정을 내는 바람에 안해는 더 말을 못하고 한숨만 내쉬며 나갔다。이때 초중 모자를 뒷통수에 붙인 아들이 돌아왔다。그는 자기 아버지 신발을 보자 문밖에서 머뭇거리다가 슬쩍 되로 나가려고 했다。

『광렬아 넌 어덜 또 가니?』

아들이 온 것을 본 어머니가 부엌에서 쫓아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에 그는 엉거주춤 돌아섰다。

그런데 방에 있던 그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 온 것을 알고 문을 버쩍 열어 제끼면서 꽥 소리를 질렀다。

『이놈 애비 망신만 시키는 새끼는 보기도 싫다。당장 없어져라!』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만나기를 꺼려하던 아들은 선불 맞은 노루마냥 껑충 뛰여 달아나 버렸다。

하기야 자녀들을 너무 방임해 두거나 또는 억압으로써만 대한다면 부모들을『망신』시킬 수도 있다。그렇다고 해서 오늘의『망신』에 분개만 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교양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념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김 동 희

류행성 "니까" 병

마 몽

«니까»라는 류행성 질병이 우리의 경제 건설 사업에서나 혹은 사회 생활면에서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여기에 그 발병 증세를 소개하는 바 이 질병의 류행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발병한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첫째 발병 례

직맹 위원회로부터 회람이 돌았다。«래일 일요일에 체육 대회를 가지려 하는 바 전체 직맹원은 오늘 퇴근 후에 1시간씩 사회 로동으로 운동장을 정리한다»

이 회람을 읽고—

사회 로동이 «니까»

나는 보고 작성 중이 «니까»

나는 초청 받았으 «니까»

나는 배가 아프«니까»

나는 가볼 곳이 있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써클원이 «니까»

이렇게«니까»병은 차츰 감염되고 번지여 운동장 정비 사업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

둘째 발병 례

반탐오 반랑비 자백 사업이 진행되였을 때에도 일부 일군들에게 «니까»병이 작용하였다。

그 사실은 알 사람이 없으«니까»

간부로서 위신 문제«니까»

신망이 납짝해 지겠으 «니까»

내 과오는 큰 것이 아니«니까»

등등으로 «니까» 병균은 량심을 좀먹어 자기 장래를 망치게 될 때까지 자백을 주저하는 일군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세째 발병 례

빼쓰 정류장에서 모두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건만—

나는 바쁘«니까»

나는 기차를 타야겠으«니까»

여기 함께 온 친구가 서 있으 «니까»

나는 먼저 타야겠으 «니까»

나는 아까 와 섰댔으 «니까»

하고 후에 와서도 앞으로 나가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있다。

네째 발병 례

인민반에서 주택 주변이며 도로며 오물 적치장 등을 청소하기로 되였다。그러자

나는 어린 애가 있으 «니까»

나는 배급 타러 가야겠으 «니까»

집이 비였으 «니까»

옆집에서도 안나왔으 «니까»

조금 있다 나가지, 시간이 이르 «니까»

하고 여기서도 «니까» 병이 전염되는 일이 없지 않다。

다섯째 발병 례

기업소에서 년간 사업을 총화하면서

우리 기업소는 지리적으로 불리하 «니까»

기술자가 적으 «니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으 «니까»

가을에는 월동 준비를 하다 나 «니까»

겨울에는 땅이 얼었으 «니까»

신입 로동자가 많으 «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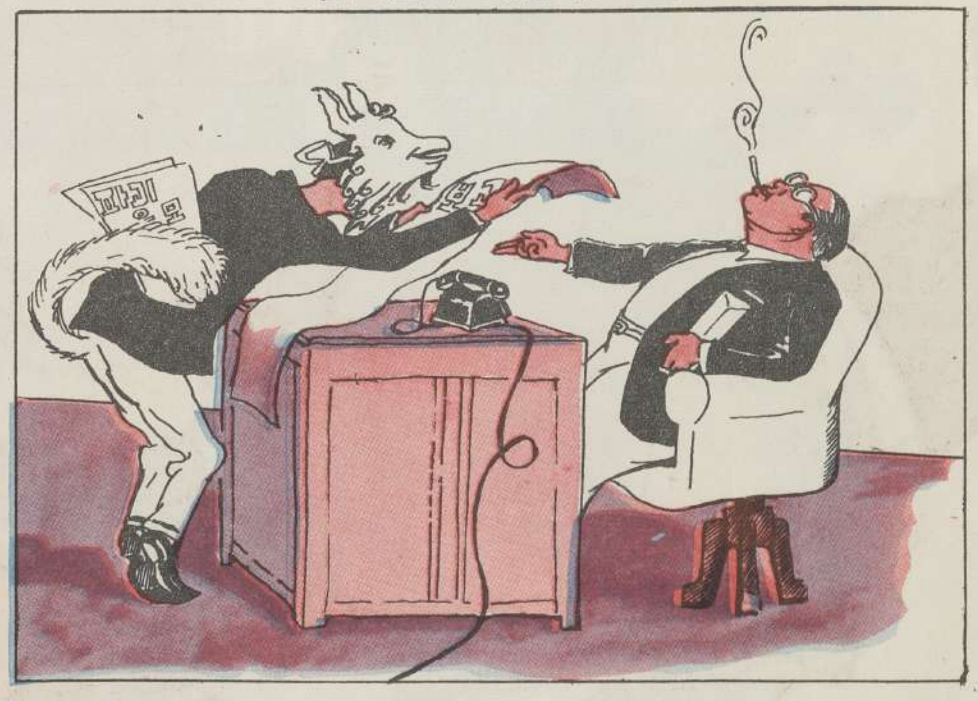
하고 «니까» 병 증세가 나타난다면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계획 과제를 미달했을 것은—

이상과 같은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려면 인민 대중의 립장에 서서 군중 관점을 옳게 가져야 한다。

반동 작가의 구상

송용남 그림

근시안적 사업에서



문성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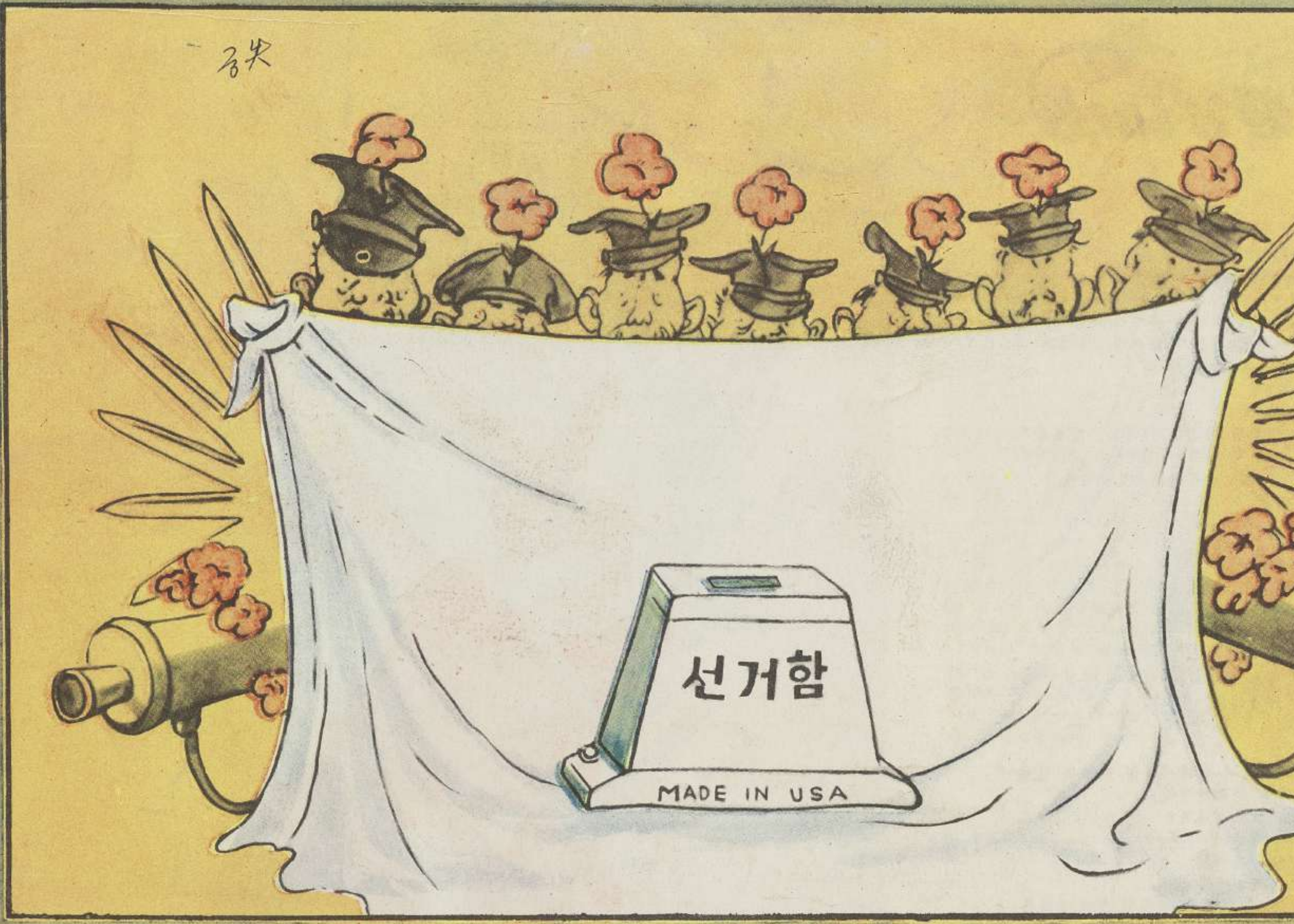
일부 일군들 중에는 경각성 없이 사람의 겉만 보고 파신하는 데서 불순 분자들이 잠입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서 만 일 신 봉 출 리 갑 기 정 현 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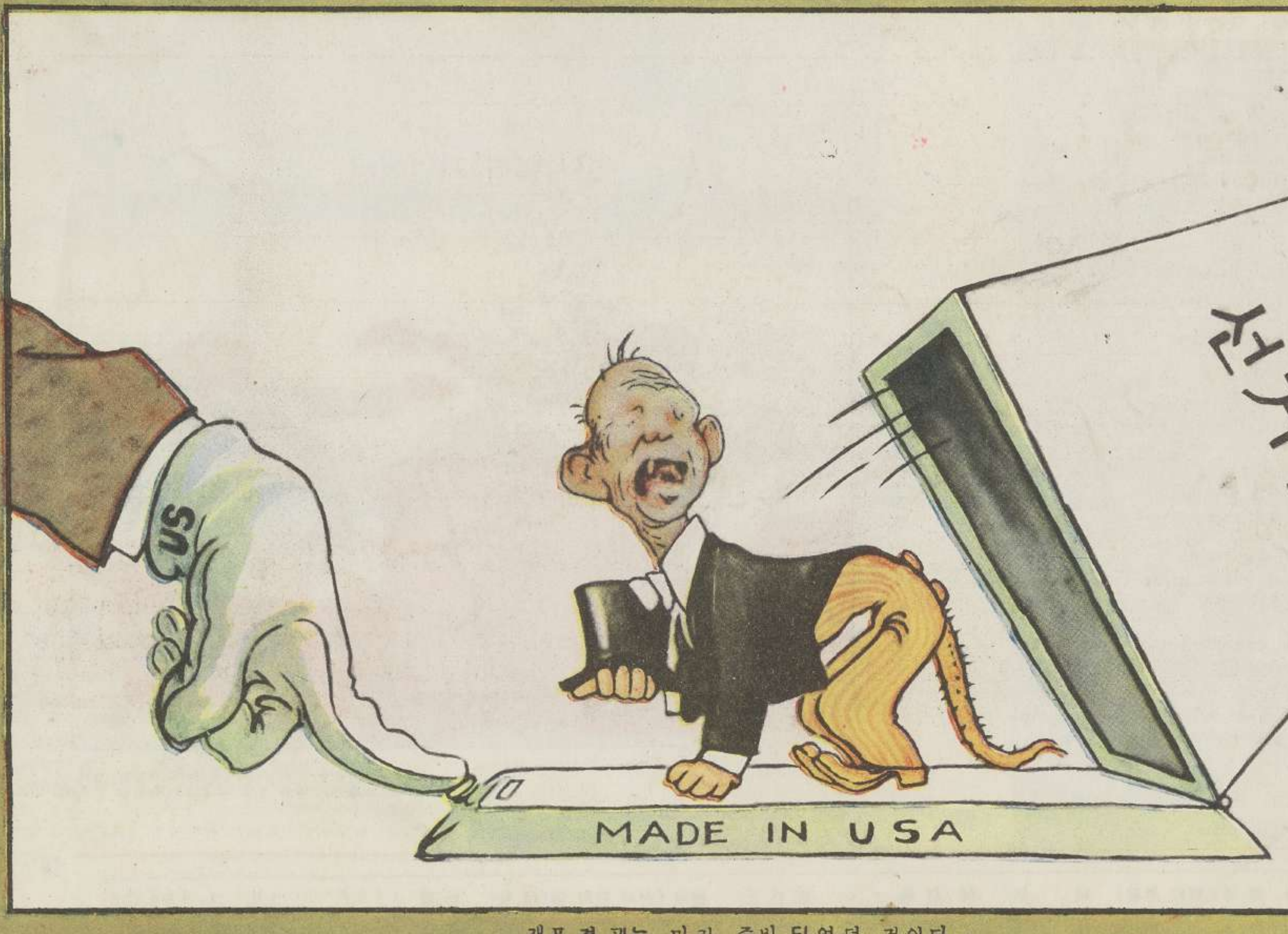
발행소 활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6. 5. 10. ㄱ—40122

인쇄소 미 술 인 쇄 공 장 발행 1956. 5. 15. (값50원)

이것이 리 승만의『대 통 령』선거 희극 이다



소위『자유 분위기』는 이렇게 분장 되였고



개표 결과는 미리 준비 되였던 것이다。

장진광 그림